

“신도불이 문화의식 고양해야죠”

산문박의 寺庫

우리문화연구가 이훈종 翁

“#이 뭘 할 겁니까? 민족학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꿈이 한 발짝 한 발짝 나무에 오르는 모습이지요. 이처럼 민족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문화연구에 평생 바쳐온 이훈종(80·우리문화연구원 명예원장·前 건국대 국문과교수)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맞춰 묵묵히 살아왔다. 그 과업이 우리 전통문화 연구와 발굴이다. 60여년을 울곧게 우리것을 규명해 온 그의 삶은 집에 걸려있는 액자의 문구 ‘與天無極(여천무극·하늘과 더불어 끝없다)’ 그대로였다.

“우리것은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역사와 국문학을 국민 모두가 지극한 관심으로 위할 때만이 민족문화가 울곧게 계승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27년전 우리것을 살리기 위해 단청, 옷, 불상과 불구, 농기구종류 등 54개 분야를 망라한 <국학도감>(일조각판)을 펴냈다. 우리문화에 대한 애정으로 전국방방곡곡을 살피며 뒤지

“서구사상에 물든 현대인 우리문화 걸만 봐요 조상의 얼·승결 보면 민족자긍심 절로 느껴요”

“#이 뭘 할 겁니까? 민족학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꿈이 한 발짝 한 발짝 나무에 오르는 모습이지요. 이처럼 민족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문화연구에 평생 바쳐온 이훈종(80·우리문화연구원 명예원장·前 건국대 국문과교수)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맞춰 묵묵히 살아왔다. 그 과업이 우리 전통문화 연구와 발굴이다. 60여년을 울곧게 우리것을 규명해 온 그의 삶은 집에 걸려있는 액자의 문구 ‘與天無極(여천무극·하늘과 더불어 끝없다)’ 그대로였다.

“우리것은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역사와 국문학을 국민 모두가 지극한 관심으로 위할 때만이 민족문화가 울곧게 계승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27년전 우리것을 살리기 위해 단청, 옷, 불상과 불구, 농기구종류 등 54개 분야를 망라한 <국학도감>(일조각판)을 펴냈다. 우리문화에 대한 애정으로 전국방방곡곡을 살피며 뒤지



잘사는 비결 “자기를 믿고 꾸준히 노력하라” ‘우리것’ 전국탐사 문화사전 ‘국학도감’ 발간

고 확실한 고증 끝에 손수 그린 이 국학도감은 그의 평생애가 스며있는 국내 유일의 민족문화 백과사전이기도 하다. 어떤 일인지 민족문화를 살리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신도불이 한국인’의 원형질이라 칭한다.

그는 너무 ‘우리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중도’라는 화두를 잡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 만큼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도(正道)에 기반한 그만의 고집이 있다.

“나는 욕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욕을 하면 아이들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담하지 않습니다. 욕에도 깊은 뜻이 담겨있어요”

그는 “우리 욕에는 민족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며 “우리 욕에는 저주의 말과 악담이 없다”고 말한다. 이를 <오사리 잡풀>이라는 책을 통해 날 날이 설명했다. ‘오사리 잡풀’만 하더라도 새하얀 살이 배인 좋은 새우만 울러오는 6월에 비해 5월 사리때는 뱀

지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욕을 부려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선비정신을 기르도록 해야해요”

“선비는 결눈질 하면 안됩니다. 학덕을 갖추고 어질고 순하며 때가 아니면 비소도 재물도 탐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이 선비정신이 일제 35년과 근대화화를 이어나가며 실종돼 가슴아프습니다.”

그는 요즘사회에서도 ‘미련한 덕은 보아도 약은 덕은 못본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보니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지만 재산은 지키기가 어렵고 죽어서 가지고 갈 수도 없으므로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 인생을 잘사는 비결로 “나는 미련하다. 그러므로 마진표를 찍지않고 계속 노력한다는 자신감과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꼽았다.

“모든 것은 본시 소질이 있어야겠지만 노력만 하면 안되는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사시절 책 표지에 글씨 써 달라고 교장선생님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집에와 생각해보니 내가 글씨를 쓰는 능력이 없는 것이 손이 없는 것과 다를바 없더라고요.” 그 길로 교무실글씨 교편까지 뒀던 글씨 쓰는 일이라면 연습으로 생각하고 정성 들여 썼다. 1년도 안돼 학교행사 등 모든 글씨 쓰는 일이 맡겨지고 5년정도 지나니 면사무소 중요글씨뿐만 아니라 비석 글씨까지 쓰게 됐다며 웃는다.

이런 여력은 지금도 이어져 여학연구소에서 발간준비중인 <상운 2천한자>를 집필하고 있다. “사람들이 꺼버거리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하지만 이건 후세교육을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전통교육을 세워야한다는 일념으로 전자 한자 유추하며 양자가 쉽도록 글씨를 손수 쓰고 오려붙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남한산성 전통문화사랑모임인 ‘요철요’ 원장으로도 활동하며 매주 토요일 모임을 주재하고 있다.

1988년 경성사범학교 재학시절 조선어연구소에 가입하여 선배들을 따라 방언과 민요를 채집하려 전국을 다녔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회고한다. 해방과 함께 진단학회에 참가했다가 조운 제작사를 만나 우리국어를 되살려 보자는 참가권유를 받고 국어교육연구소를 발기하면서 건국대에 재입학하여 국문학을 공부했다. 건국대 재직할 때 사학과교수였던 윤계승(前 태고종총무원장·원효연구위원장)을 만나게 되면서 불교세계가 구체화 됐다고 한다. 어느날 <금강경>을 달력 뒷면에 정성 들여 사경해 윤계승님에게 보였더니 깜짝놀라더라고 한다. 다음날 윤계승님이 손에 봉대를 감고와서 ‘왜그러느냐?’고 물으니 <금강경> 사경한 것을 보고 집에 가서 2번을 썼더니 손이 부었다고 해서 서로 한참 웃었다는 일화를 소개한다.

“나무는 위로 올라간 만큼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풀은 위만 있지 밑은 부실해요. 이 원리를 터득하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문화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화두를 던진다.

하남=김원우 기자

사람의 영식을 부릴 수 있습니까

문 우리는 삼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고차원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영식을 부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저 성격의 기도로 나오는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르침 바랍니다. (김원석·경북 안동시 화성동)

답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고 나아가서는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바로 무심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면서 악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차원이니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같은 그런 언어가 붙질 않지요. 그냥 돌이 아는데 수만의 영식이라도 나한테 넣을 수 있고 내가 수만의 영식으로 화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때는 본들이 가르치는 뜻은 무슨 차원이 어떻다, 단계가 어떻다 하는 게 아니라

해서 그게 기독교에서 하는 초월자 얘기와 뭐가 다른가요 합니다.

내가 보기에 처음에 기독교에서도, 아니 예수말씀이 원래는 그렇게 아는데 말씀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예수가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한 걸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라 한 그 말은 ‘각자가 참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가십존자가 결집시에 아난존자를 들여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잘못 편집이 될까 보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 한 마디만 잘못 편집해 놓아도 완전히 망치기 때문이지요.

저 영주에서 알아 하나만 빠져도 주르르 알아 다 흩어지듯이 글자 하나만 잘못되도 알아 달라진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편집을 잘못해서 스스로 증득하는 길로 가게하지 못하고 하나씩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진리 그대로 마음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 각자의 근본 마음자리를 믿으라는 게 어째서 초월자를 믿으라는 얘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초월자라고 한다면 그건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입니다. 불성을 믿고 불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편의를 받습니다. 불만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유신원 대행님에게 문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주장자 하나도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한면 어쩌나 하는 식입니다.

달마대사가 주장자 끝에 짚신 한짝 꿰고 또 한 짚은 무덤의 관 속에 놓아둔채 걸어 가더라 하는 얘기가 있지요? 그건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돌이 아나게 무심으로 증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 입니다.

차원으로 얘기하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하겠지만 무심도리에서 일체를 돌이 아나게 수용한다면 차원은 뭉뚱그려 한 차원이라해도 됩니다. 아, 삼천대천세계가 한 통속이요 한 마음인데 돌! 한다고 하나가 아니고 넷! 한다고 하나가 아닌니? 만부처를 불러도 하나요 십만불을 불러도 하나지요.

가령 저 7차원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천국이고 모두가 다 보배, 천당 지옥이 따로 없으니 어디서 찾아가 한다면 내 말을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귀족하면 전부 귀족하고 전부 천당이고 전부 보배이며 내 마음 귀족하지 못하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온통 시비분별 뿐이고 가는 곳마다 원망과 비방과 이해다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도리를 무조건 믿고 따르며 열심히 닦는 게 중요하지 차원이 어찌나 영혼이 어머니 초월자가 어머니 하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나를 발견하고 돌이 아난 도리를 알게되면 그런 것은 묻지 않아도 절로 풀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인공 당신밖에 할 수 없잖아!’ 하라고 했다

동시에 두곳에 나눌 수도 있지요

문 어느 책에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도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간에 여기 있으면서 저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허문숙·경남 통영시 향남동)

답 요즘은 서울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가 할 때에 부산에 앉아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부산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도 동시에 보고 전국 어디에서나, 미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헤어질 수 없이 내가 된다해도 졸지도 두드러지지도 않는다는 한신 것과 같지요?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얘기로 나뉘는 얘기입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법을 하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한 생각에, 한 철학의 일이지 몸뚱이로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런 위치가 되어야 알 얘기입니다. 마치 초등학교에 대학원생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공부해서 얼른얼른 이 도리의 맛을 보도록 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치로 따지고 머리로는 헤아려서 이 법을 알고자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해서 알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극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주인공에 놓고 관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 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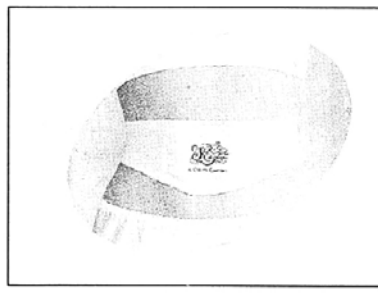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60호(1996. 1. 3) - 제 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김힐(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민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땀샘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글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뼈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감당선으로 통한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항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항비라는 조그마한 껍을 배꼽에 차머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